

해터슬리의 국민배당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영국의 찰스 마셜 해터슬리(Charles Marchall Hattersley, 1892~1952)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더글러스(Clifford Hugh Douglas, 1879~1952)의 저작에 영향을 받아 사회신용(social-credit) 이론을 대중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운동에 뛰어든다. 1950년대 초에는 사회신용 원칙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던 캐나다 앨버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터슬리의 첫 번째 책인 『공동체 신용(The Community's Credit)』(1922년)은 사회신용 운동 지역 지부에서 했던 일련의 강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노동’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유일

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정통파경제학을 비판하고 현대 산업 생산은 세 가지 요소, 즉 자본, 노동, 공동의 문화유산이 결합해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더불어 이 유산이 국민배당으로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배당에 대해서는 이후 나온 다음 책들에서 중심으로 다룬다. “This Age of Plenty”(1929), “Wealth, Want and War”(1937), “The People’s Purse(1937)”.

번역은 『공동체 신용』, 102~114쪽이며, 원문은 <https://archive.org/details/communitycredit00hatrich>에서 볼 수 있다. 각주는 원문의 것이며, 번역자의 것이나 번역자의 보충은 따로 표시했다.

『공동체 신용』

제7장 사회신용의 원칙 (2), 국민배당

C. 마셜 헤터슬리

다른 것으로 보충되지 않는 임금 체제가 현대의 진보적인 산업 공동체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매일 같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과학을 산업에 응용하는 목적은 인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지출하면서도 인류가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과학적 발명과 발견이 기계의 힘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미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 체제는 점증하는 실업으로 인해 더욱 부적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진보로 인해 산업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분배하는 어떤 수단을 고안할 필요성도 마찬가지로 점점 필요한 일이 된다.

잠재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임금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이 명백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는 걸보기에 변칙적인 노령연금과 실업수당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는 실제로 조건부 국민배당 혹은 공동체배당에 다름 아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행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만 근거해 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전체 수입을 이런저런 종류의 배당에서 가져오고 있다. 수행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다른 외적 고려 없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배당 체제가 임금 체제의 자연적, 논리적 동반자라는 것은 분명하

다고 할 수 있다. 편의에만 근거할 때 그러한 보충적인 체제가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실업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구제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들리는 반대는 결국 실제로 혹은 사실상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부도덕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반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배당 체제가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원칙상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산업에 의한 생산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난 효과의 결과다. 첫 번째로 공장과 기계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자본이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신, 근력, 인간 에너지의 제공자인 노동이 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공동의 문화유산이 있다.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는다면 맨체스터신용개혁그룹이 발간한 브로슈어에 나온 말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과학은 인간의 팔과 주먹의 힘을 강화했다. 과학은 인간의 눈과 귀의 능력을 확대했다. 인간은 목소리를 대양이나 대륙 너머로 보낼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는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다. 인간은 밸브를 여는 것을 통해 수천 마력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기계의 이용으로 부의 생산이 쉬워졌으며, 인간 노동이라는 요소는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다. …… 동굴에 살던 인간과 달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다.

하지만 우리의 유산은 이것보다도 크다. 우리의 유산은 질서 잡힌

정부, 산업조직, 사회조직, 정치조직, 교육, 종교, 수많은 문명의 편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노동 없는 자본은 무력하다. 자본 없는 노동은 실제로는 힘이 없다. 공동의 문화유산과 분리된 기계, 정신, 근육은 혼란스러운 것이 되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한 노사분규가 거의 언제나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윤의 분할에 따라 결정되며 공동의 문화유산에 따른 몫은 망각되거나 무시된다는 것을 누가 모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공동의 문화유산의 상속자인가? 이 빛나는 유산의 상속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이며 모든 구성원은 모두의 공동의 문화유산의 공동 상속자다.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의 단독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저 수많은 다른 사람의 발명과 아이디어를 정신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도 산업 생산물에 대해 몫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현재 공동체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생산 활동에서 자본가나 노동자에 속하거나 둘 다에 속하기도 하는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또는 그녀의 몫이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몫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특정 구성원은 이 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성원은 과거의 발견, 발명, 문화, 문명, 질서, 사상, 축적된 자원 등의 상속자로서 증가된 공동체의 실질 신용 가운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 끝으로 더글러스가 『신용의 힘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

의 서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가장 잘 작동하는 도덕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부도덕한 것은 현재의 경제체제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생산자로서 얻는 보수와 무관하고 이러한 보수에 더해 당연하면서도 권리로서 공동체배당을 개인으로 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배당이란 공동체 전체의 실질 신용의 증가분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몫이다. 국민배당은 수급자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분배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편의를 고려해 조세 수입에서,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주 “실업수당dole”이 분배되고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임금을 벌기 시작하면 곧바로 정부 교부금이 중단되는 벌칙을 받게 되는 명백하게 유해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현재에는 실업부조로 분배되는 금액이 공동체의 지불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대신 실업자들이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최소 금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실업 급여는 실제로 현재의 경제 체제의 유해한 효과를 막는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의 일종이며, 물론 그 경향은 가능한 한 혜택을 낮추는 데 있다. 사회신용이라는 제안에서 실업자와 취업자 모두에게 국민배당으로 분배되는 총액은 공동체의 지불 능력과 완전히 비례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어 공동체의 지불 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H. M. M. 은 <높은 물가에 대한 해결책The Cure for High Prices>라는 브로슈어에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불되는 국민배당 계획을 채택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득을 다루었다. 그는 이렇

게 쓰고 있다.

모든 남자, 여자, 아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통해 버는 것과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경우,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있는 남자를 독신과 동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성이 남성 친척에게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하며,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생활방식이나 결혼 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산업 활동을 계속하려는 공개된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는 과부, 고아, 아픈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고령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 천재 등등에게도 해당한다. 더 나아가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람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입지를 모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러한 배당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더글러스 소령의 대답은 국민배당의 재원이 공동체의 실질 신용의 증가로부터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임금, 봉급, 배당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배당은 산업에 부과될 것이며, 생산비에 추가되는 항목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산업이 국민배당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여하는 금액은 그 산업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 매우 온건한 수준이겠지만 일정 정도의 비율로 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면에서는 국민배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제안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신용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제안된 수단과 방법을 다루기 전까지는 미루어두는 게 좋

을 것이다.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당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며, 현재의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공동체의 실질 신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가능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산업에 추가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더 진보하도록 분명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공동체의 생산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민배당에 주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다. 그럴 경우 지금처럼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배당과 별도로 임금이나 봉급의 형태로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알렌 영 씨가 자신의 팸플릿 『모두를 위한 배당』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임금 수취자는 노동 절약적 방법과 장치에 대해 당연히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향이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에는 인구 다수에게 구매력을 분배하는 것이 실제로 고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생산능력과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국민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적대감의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실업으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경우 과학은 인류의 산업적 해방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수당 — 이는 사악한 변칙이다 — 에 대한 필요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 가서는 슬림 및 고된 노동과 함께 우주의 어둠으로 사라질 것이다.

사회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 체제를 유사類似 金鎊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신용에 근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 발전의 연속성에 갑작스러운 단절을 일으키지는 않

을 것이다. 도리어 이것은 자연적인 경제 경향의 과학적 주형이 될 것이다. 인류 초기에 경제 체제는 명백하게 교환에 기초해 있었다. 재화와 서비스는 재화와 서비스와 직접 교환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진화하면서 효과적인 교환을 위해 통화 징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징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 가죽, 깃털, 색깔 있는 돌, 가죽 — 이었고 실제로는 원시적인 상업의 필요에 적절할 정도로 충분히 일반적이면서도 가치가 있을 만큼 희소한 어떤 것이었다. 이것이 경제 발전의 두 번째 단계다. 오늘날 우리의 통화와 경제의 체제 전체를 금에 기초하는 것으로 돌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는 것이다. 화폐는 징표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무관한 가치가 있다는 관념은 훨씬 나중에 등장했다. 교역의 확대 및 사상의 발전과 함께 경제생활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 오고 교환의 매개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정한 것 — 오늘날에는 신용으로 알려져 있다 — 이라면 꼭 가치 있는 물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면서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징표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서 수용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징표에 부착된 것이 그 수단을 통해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입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표를 이루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었다. 눈금이 표시된 막대기와 현대의 법정 지폐는 모두 내재적으로 가치가 없는 징표가 거기에 부착된 신용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좋은 예다. 그러한 징표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한으로 수용되는 한 이것들은 화폐다.

아주 옛날부터 “화폐”의 발행은 정부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산업의 진보와 상업의 확대로 인해 좀 더 유동적인 교환의 매체,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얼마 후 이러한 필요를 은행이 공급하게 되었다. 그 후 주권 당국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에 더해 교역이 극도로 번성하면서 사적인 개인과 회사가 발행하는 대량의 신용이 유통되게 되었다. 나중에 은행 신용장 Banker's Credit이라고 부르게 될 이 새로운 신용은 장부 기입의 문제였고, 오늘날에는 은행 장부에서 그러한 신용을 이전하는 것을 통해 간단하게 부채를 갚고 장부를 마감하는 통상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되었다. 상업과 산업이 확대되면서 은행 신용장도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이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신용의 총량은 법정 화폐 총량의 다섯 배 내지 여섯 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은행이 이만큼 정부의 기능을 빼앗은 것이다. 신용 발행과 신용 제약의 힘이 개인의 손에 놓이게 되었으며, 법정 통화가 아니라 은행 신용장이 점점 더 산업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유통되는 은행 신용장의 양에는 한 가지 제약 이외에는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요구가 있을 때 은행이 자기 신용장에 대해 법정 화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다. 이 의무가 은행 신용장의 총량이 법정 화폐의 총량의 몇 배가 될지를 실제로 제약한다. 실제로 은행은 일종의 안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 신용의 적절한 분배와 활용이라는 금융 신용의 존재 이유로 인해 그러한 신용의 양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일로 보일 것이다. 제한이 있다면 산업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유통 중인 법정 화폐의 총량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법정 화폐의 총량이 공동체 내의 금의 양에 의해 제약받는다면 그 불합리성은 더 커진다. 경제 상황의 자연적, 논리적 발전은 분명 금융가와 은행가에게서 신용 조작 기능을 빼앗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발행의 규제와 신용의 제한은 자동적으로 산업을 따를 것이다. 즉 공동

체의 실질 신용은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과 상업의 확대는 금융 신용의 확대에 의해 가능할 것이며, 인위적이고 관계없는 제약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신용의 부분이자 부속물로서 편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러한 양의 통화가 유통될 것이다. 더글러스는 적절하게도 이를 “신용의 소규모 잔돈”이라고 불렀다. 끝으로 자동적인 신용 팽창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자동적인 가격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신용 원칙의 채택이 경제적 경향의 논리적인 발전을 도와줄 것이다. 금융 신용이 사실상 사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현행 체제 대신에 금융 신용이 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비자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금융적, 경제적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유통되는 금융 신용의 양은 점점 더 국민 실질 신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발전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대